

익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범 도시재생사업 사례로 주목... 지속 성장 ‘기대’

익산 중앙동 구도심이 쇠퇴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익산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며 첫 발을 뒀다. 2018년부터 250억 원을 투자해 6년 만인 지난해 준공했다. 주요 거점 시설로 △청년시청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있다.

시는 구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 문화주차장 1·2공구 조성사업(45면)과 남부주차타워 건립(187면)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인근 평화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약 3,000세대가 공급되면, 구도심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첫 청년 시청 역시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청년시청은 10년간 공가로 방치된 한 호텔을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청년이 방문했고 전북에서 가장 많은 14개 청년정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179명의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도시재생은 익산역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음식·식물교육문화원의 1층은 익산 향토기업인 (주)하림그룹 계열사인 (주)엔바이콘과 위탁 계약해 닭구이 전문점 ‘계화림’을 운영하고 있다. 계화림은 치킨로드 선정자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원 2층 청년공유주방은 구도심 지역에 음식 관련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이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자생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최장 2년 동안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월평균 400~1,400만 원의 매출을 창출하며 창업 기초를 다지고 있다.

재생의 바람은 재래시장 안에도 불고 있다.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1층

은 고객 센터와 버스킹무대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 중이며, 2층은 VR 체험관과 유아놀이방을 운영해 인접한 중앙시장 청년들과 연계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놀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방치된 상가를 활용해 만든 익산글로벌문화관은 다문화 사회에 맞춰 다채롭고 유익한 세계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에서는 다문화 음식점(식당, 카페)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세계전통물품전시관과 전통의상체험장으로 사용된다. 이 공간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강좌와 세계의상체험,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크고 작은 효과들을 불러오고 있다”며 “나머지 5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도 잘 마무리해 지속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시 찾은 조국, 잊지 않을 것’

군산시, 제79회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단체장 및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독립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전년권 광복회 전북지부 군산·김제·부안연합회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선열들의 목숨을 건 숭고

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축식을 마친 광복회원들은 은파호 수공원 내 군옥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을 찾아 참배를 마쳤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어촌인력난 적극 해소에 ‘만족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배치·전년 대비 2배 이상 근로자 인원수 증가

군산시가 어촌인력난 적극 해소를 위해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2021년, 전국 최초 해면양식 분야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부터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왔다.

이후 해를 거듭하며 고용 어가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한편으로는 어촌계, 관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홍보 하던 시에 올해는 전년도의 2배 이상인 130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 수산분야 계절근로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고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인력 확보 필요성과 고용어가의 계절근로자 선호 국적(베트남 93%) 등을 고려해 군산시는 지난 5월 우호 도시인 베트남 불태우시의 외국인 계

절근로자 업무협약(MOU) 관련 화상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7월부터는 근로자들이 지낼 숙소를 시청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점검했고, 현재 근로계약 및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입국 중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주와의 개별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성실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보조금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유례없는 폭염 속에 축산피해 예방 위해 ‘총력’

폭염피해 예방 상황실 운영 등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유례없는 지속적 폭염으로 발생하는 축산피해(폐사,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 발생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내 축산·동물방역 담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신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피해에 취약한 축산 농가들을 사전에 방문해 △소송판 등 냉방설비 정상 가동 여부 확인 △한낮의 축사온도를 낮추기 위한 적정 사육 환경 점검 △여름철 가축 질병 발생 여태를 위한 해충 방제와 정기적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 1억 2,500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8,000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3,200만원 등 총 3개 사업

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 중이다.

군산시는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통장 회의 및 단문문자(SMS) 등을 활용하여 가축 사육관리 및 폭염 피해 예방 요령 등을 홍보하는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신 부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3주째 폭염경보... 시, 행정력 ‘총동원’

살수차 운영·버스 정류장 주요 지점에 얼음·생수 비치 등

익산시가 지속되는 폭염 상황에 시민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지역은 지난 7월 24일 발효된 폭염경보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일최고 체감온도가 2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올여름 더위로 인해 현재까지 익산에서는 온열질환자 8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치료를 받고 무사히 귀가했다. 또 폐지 3,100여 마리와 가금류 1만 6000여 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 익산시는 폭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는 5개 노선의 살수차를 운영해 도로 위 열감을 줄이고 있다. 또 28개소 버스 정류장 등 주요 지점에 대형 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시민들이 시원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



익산시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재난도우미와 생활지원사 등의 인력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노인 세대를 찾아가 폭염 속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문 보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은 울여름 방문이나 전화상담 2,000여 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관리 건강수칙을 교육하고, 열압이나 열당, 플라스틱 등 전반적인 건강 상황을 확인해 폭염에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

또 시는 지역에 499개소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본격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부터 운영 가능한 무더위 쉼터의 상태를 점검하고, 냉방비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수시로 마을 방송과 재난안전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홀로 지내는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에게는 장기간 지속되는 울여름 폭염이 더욱 가혹할 것”이라며 “남은 여름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예방책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축식을 마친 광복회원들은 은파호 수공원 내 군옥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을 찾아 참배를 마쳤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익산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경축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15일 예술의전당 증곡연장(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정현울 익산시장과 이춘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의원, 광복회 및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경축식은 이해석 대한광복회 이사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정현울 시장의 경축사,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광복회 익산지회 김일권 씨와 조연 씨가 광복절 유공시민으로 선정돼 표창

을 받는다. 이해석 이사는 “우리가 오늘날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를 잃은 뼈아픈 과거를 삼키고 다시는 이런 시련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울 시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기리고 고귀한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선조들이 광복의 그날을 함께 만들어낸 것처럼 위대한 도시 그대로 이트 익산의 원대한 꿈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난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익산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익산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기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개최됐다. 매년 기림의 날인 8월 14일 열리는 이 기념식은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이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은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공연과 전시를 마련했다. 조상의 교수의 색소폰 연주와 김유라 소리꾼의 단가, 서희식 시인의 시 낭송, 소리피의 마당극 ‘이리랑’이

이어졌다.

또한 익산역 주변에 추모시를 전시해 철도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기림의 날을 알리고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최초로 알린 것을 계기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익산 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2017년 8월 15일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9주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개최

지난 13일 군산시는 동국사(군산시 동국사길 16)에서 피해자들의 뜻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를 개최했다.

‘군산 평화의소녀상 기념사업회’ 대표 이승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제9주기를 맞이하여 군산시 관계자, 기념사업회원, 일반시민, 관광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민요, 대금연주, 현곡대례, 기림행사(시 낭송 및 무용) 순으로 엄중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군산시장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감사드린다”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카카오톡

시내버스 운행 정보 안내

앞으로는 군산시 시내버스 이용 시 휴대전화로 운행 및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15일부터 카카오톡 어플에서 제공하는 초정밀버스정보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주)카카오와 군산시 간 ‘초정밀버스정보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결과이다.

초정밀버스정보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해 카카오톡 앱에서 버스 주행중 또는 신호 대기상태 등 실시간 운행 위치 정보를 5m 오차 범위 내 1초 단위로 갱신해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달리 지도상에서 실시간 버스의 움직임을 알려줘 회차지를 지나는 버스의 도착시간이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산시가 도입한 서비스이다.

이용 방법은 먼저 모바일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다운로드 해야 한다. 이어 카카오톡 첫 화면에서 초정밀버스 기능을 클릭한 후 ‘군산’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정류장 검색 또는 길찾기에서 상세 경로를 선택하면 버스 이동 경로를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올 하반기까지 읍면동 지역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8대 추가 설치하고, 고장이 잦은 노후 안내기와 LED 단자를 교체해 버스정보시스템의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관리도 예술섬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6일부터 관리도 예술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내 예술특화형 명품 해상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군산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군산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왔다.

군산시에 의하면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인용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모의 방향은 예술을 테마로 하는 예술섬 특화방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3천억원 이상 사업계획 및 사업성 제시(군산시 제공 기본 컨셉을 참고하되 사업계획은 자율) △건실한 업체 참여를 위해 재무능력 요건 제시 △인센티브 사업은 본 사업의 수익계산 등 통해 필요시 제안(사업종류 자율) △본 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의 인허가 타당성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내 소통참여-시정알림-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과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